인민의 희한한
보금자리
복받은 이 나라 인민이 여기서 산다. 우리가 산다. …
평양
출판사

인민의 희한한

보금자리

주체 111(2022)년 6월

사회주의문명거리
송화거리

따사로운 4월의 봄빛이 흘러넘치는 수도 평양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구가하는 인민사랑의 기념비적 창조물인 송화거리가 훌륭히 일떠섰다.

조화롭게 들어앉은 특색있는 초고층, 고층살림집들, 각종 편의봉사시설들,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과 해빛이 비쳐드는 넓은 살림방들, 밝고 큼직한 부엌, 물가열기가 설치된 세면장 등 밖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나무랄데가 없는 사회주의문명거리이다.

희한한 대건축군을 펼친 송화거리야말로 인민을 위함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가 응축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불타는 일념을 안으신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상거리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며 불면불휴의 날과 날을 이으시였다.

나라의 천사만사가 겹쌓이는 속에서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으며 1 200여건에 달하는 1만세대 살림집설계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그뿐 아니라 건설력량과 시공분담, 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건설자재들과 공사용연유, 건설장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대책해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물동을 즉시에 수송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완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세상에는 번화함을 자랑하는 거리들이 많지만 고금동서 그 어디에도 평범한 근로자들의 살림집건설을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인 례가 없었으며 송화거리처럼 철두철미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떠선 인민의 리상거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새 거리, 새집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은 직업과 경력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들모두는 우리 당이 사랑과 정을 다해 보살피고 행복만을 안겨주는 인민이다.

오늘도 사회주의문명거리 송화거리는 사랑과 정으로 아름다운 우리 사회, 인민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우리 당, 우리 제도, 우리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길이길이 전하고있다.

사회주의문명의
새거리
송화거리

위대한 사랑의 힘에 받들려
일떠선 인민의 리상거리

하늘의 별무리 그대로 내려앉았나, 무수한 창가마다에 불빛이 흐른다.

그 불빛속에서 인민은 속삭인다. 행복의 보금자리를 펼쳐주신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인민의 고마움의 목소리

《당에서 우리 로동자가정에 훌륭한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로동자 정희성)

《나라에서 영예군인이라고 불편이 있을세라 살림집의 층수까지 헤아려 새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화거리건설을 위해 땀 한방울 바친것이 없으니 열쇠를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영예군인 김인국)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저와 같은 사람도 새집의 주인이 되였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늘같은 은덕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통강구역화초사업소 로동자 김순영)

《저의 동생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루동에, 저는 이렇게 송화거리에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두고 로동당시대에 복을 쌍으로 받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평천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 전영민)

새 보금자리로

사회주의번화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경치좋은 보통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우리 식의 고유한 멋과 특색, 현대건축발전추세를 훌륭히 반영한 사회주의번화가가 일떠섰다.

다락식, 다층, 소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호화로운 살림집들과 주변환경이 잘 어울리게 원림록화가 되여있는 새로운 형식의 특색있는 주택구로 하여 보통강반의 풍경이 천지개벽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희한한 살림집을 보고싶다며 알건모르건 집문을 두드리고 집주인들과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함께 부르며 울고웃는 감동적인 화폭이 매일 이다싶이 펼쳐지고있는 경루동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건축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로 되는 호화주택구를 마련하여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건설 전 과정을 직접 조직지휘하시였다.

지난해 3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사실 이곳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이 자리잡고있는 성스러운 곳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5호댁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고 한다는것을 아시면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현지를 돌아보시면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건설을 책임지고 내밀도록 하시였으며 필요한 자재와 자금보장을 위한 전례없는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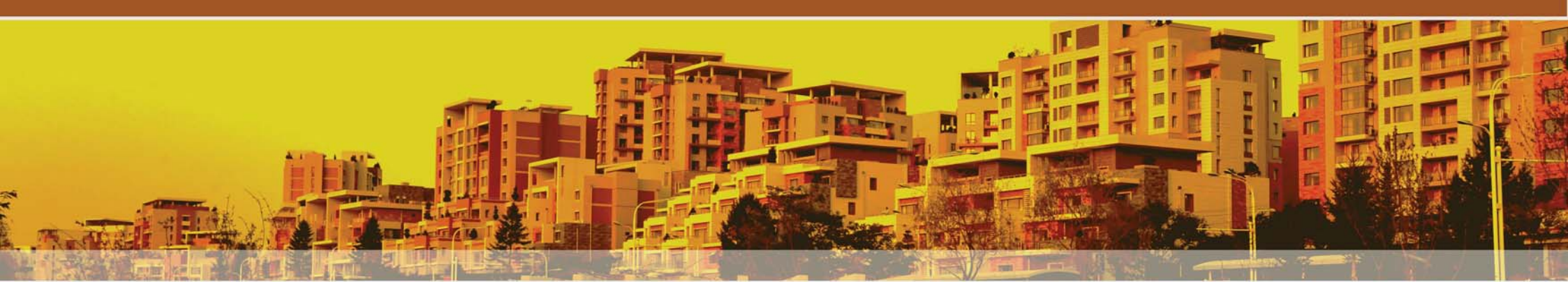
주민들의 교통상편리를 위해 새로운 운행로선을 내오도록 하시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헌신적으로 일하며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게 살림집이 차례지도록 배정방향까지 정해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이 상징적으로, 의미있게 안겨오는 《경루동》으로 몸소 지어주신 그이께서는 준공식날에는 새살림을 펴게 될 자식들의 집을 찾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주택구와 살림집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근로자들에게 희한한 살림집들을 또다시 안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 황홀한 호화주택의 주인들은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조국의 큰 짐을 덜기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치며 헌신분투한 모범적인 로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다.

보통강반에 솟아난 사회주의번화가 경루동은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조국을 받드는 참된 애국자들의 동리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희망넘친 래일을 그려주는 만복의 상징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조형화 예술화 실용성 편리성
경루동

경루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내나라 제일로 좋아

수도의
로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들이
경루동의 호화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았다.

인민의 고마움의 목소리

《한뉘 실만 뽑아온 저에게 이런 호화주택을 안겨주셨으니 이 크나큰 은덕을 머리칼을 베여 신을 삼은들 어찌 다 갚을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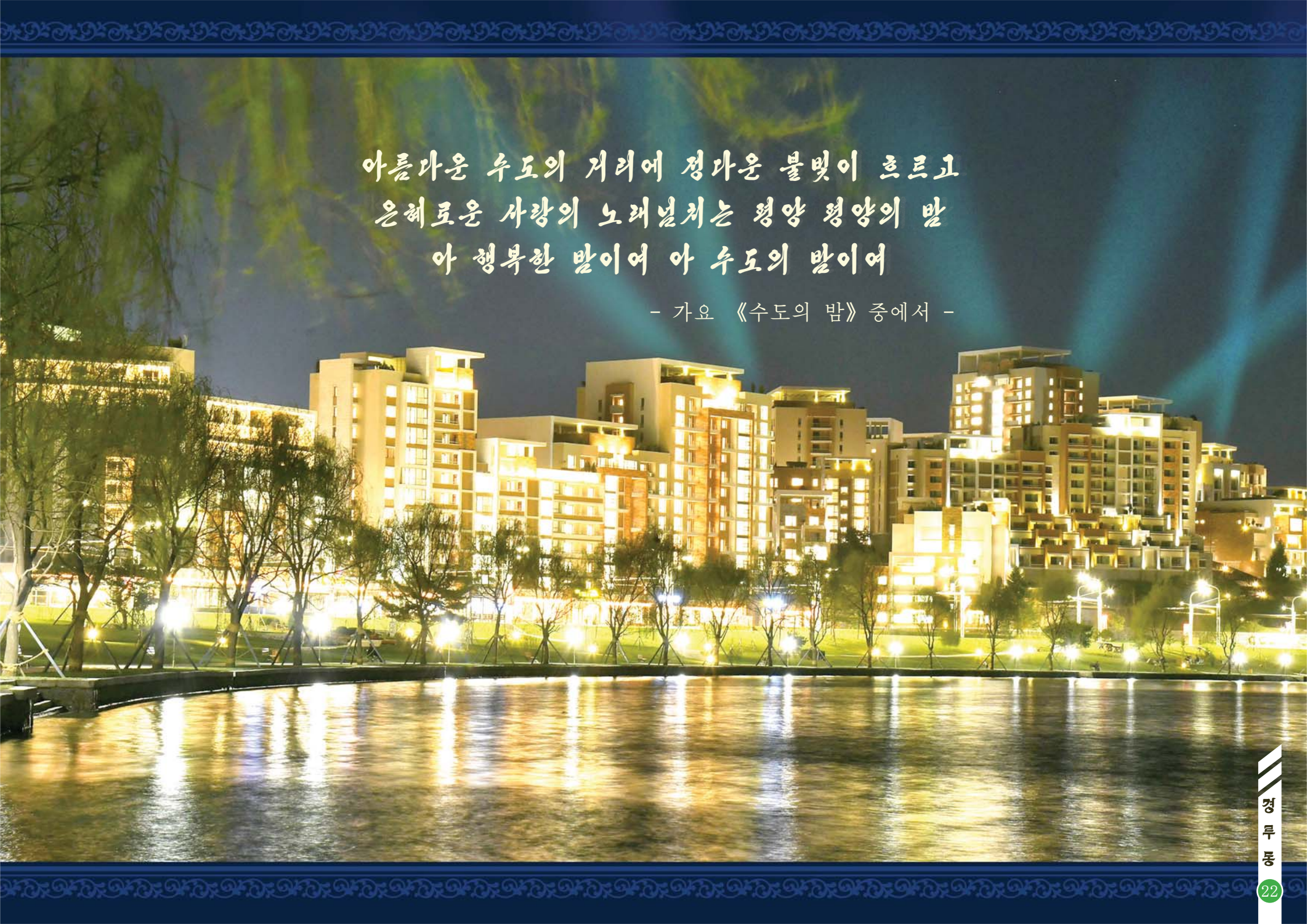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작업반장 전금실)

《밤늦게 퇴근해온 내가 옷을 벗을 때면 탄가루가 떨어진다고 얼굴을 찡그리군 하던 우리 아들이 저에게 용서를 빌며 우리 원수님께서 그처럼 내세워주시는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찌르르했습니다.》

(동대원구역연료사업소 로동자 조명환)

《제가 지난 20여년간 다기대운동의 순회길을 쉬임없이 달린것은 이 나라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본분이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로동자인 저를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고 오늘은 이처럼 궁궐같은 새집까지 안겨주니 정말이지 꿈만 같아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공훈직포공 리명순)

《너무도 희한하여 꼭 호텔같은 이 집이 과연 평범한 운전수인 내 집인가 하는 생각에 온 가족이 고마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한몸을 깡그리 불태워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갈 마음뿐입니다.》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공훈운전수 허명금)

《저와 같은 로동자들이 자본주의사회의 억만장자들도 깜짝 놀랄 호화주택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세상의 온갖 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싶습니다.》

(평양화력발전소 작업반장 김태봉)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에 정다운 불빛이 흐르고
은혜로운 사랑의 노래넘치는 평양 평양의 밤
아 행복한 밤이여 아 수도의 밤이여
- 가요 《수도의 밤》 중에서 -

인민의 희한한 보금자리

편 집 박봉혁
촬 영 김남철, 로남철
글 권지혜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1(2022)년 6월 22일
발 행 주체111(2022)년 6월 24일

ㄱ-1545ㄷ